

2024
이단경계주간
자료집
(10.28~11.2)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목 차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제 • 이 철 감독회장 ■ 2

기도회 자료 1 (계시론) • 이영한 목사 ■ 3

기도회 자료 2 (신 론) • 임성모 목사 ■ 4

기도회 자료 3 (인간론) • 여봉호 목사 ■ 5

기도회 자료 4 (기독교론) • 서영석 교수 ■ 6

기도회 자료 5 (구원론) • 현교웅 목사 ■ 7

기도회 자료 6 (교회론) • 김인수 교수 ■ 8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 10

이단경계주일 설교문(종말론) • 김현식 목사 ■ 12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문제

최근 유튜브에서 마치 기독교의 성경공부나 영적인 집회인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모두 신천지에서 제작한 것들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일반교회의 목회자들이 신천지 집회를 참여하는 모습과 신천지가 알고 보면 건강하다는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불교의 승려도 신천지의 강의를 듣고 난 후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축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사이버에 매매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나 사이버를 보면 구별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차이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있고 사회적 신뢰 역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버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영적인 위기, 영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의 풍요에 비해 영혼의 갈증을 호소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몸을 중요시하여 건강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무한경쟁 시대가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자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 환경오염, 문명사고, 잔혹범죄 등 위험한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정신적인 안전망을 찾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 요가, 기수련, 마음 수행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신비주의, 심령술, 마음 에너지, 초자연 현상, 채식주의 등은 거의 종교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앙을 둘러싼 이단문제 때문에 교회는 늘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반기독교 메시지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향해 도전해 옵니다. 과학, 예술, 문학 등을 동반함으로써 현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가옵니다.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잘못된 이단을 근절하고, 비뚤어진 영성을 바로 진단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무성함 속에 감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전례 없던 칠년 풍년기간 동안, 그 이후에 찾아올 칠년간의 대기근을 준비했던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복음주의적 전통에 서서 영혼구원을 위한 복음전파에 힘쓰면서 이를 통해 사회의 개혁과 성화에도 관심하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이 영국사회를 복음으로 개혁하는 운동으로 불렸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의 유산을 계승하여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정통교회입니다. 이단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모범과 표준을 제시하는 교회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매년 이단경계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의 영적상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발행되는 자료집이 영적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믿음의 자양분이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대책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필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감독회장 이철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첫째 날(2024.10.28. 월요일)

하나님의 계시(계시론)

-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성경: 미 6:8
- 참조: 감리회 종교의 강령 제5조 성경이 구원에 족함

타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계시는 일반계시(general revelation)와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로 구분됩니다.

일반계시는 창세 이후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와 섭리주임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계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타 종교도 하나님을 믿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며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또한 기독교와 토착 종교가 대화가 가능하고, 협동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기여한다고 보는 토착화신학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반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의 원죄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일반계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의 은혜로 표현했습니다. 선행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기에 일반계시인데 이것에 순종하여 양심의 가책이나 선한 양심을 느끼며 특별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회개의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을 견도록 인간을 인도하게 됩니다.

특별계시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으로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를 통해 구원받고 그 후에야 일반계시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반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유일무이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2024년 연회를 녹색연회로 진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환경을 살리고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주장의 이면적 기초는 일반계시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단적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리교의 환경운동이 어느 정도의 선까지 가야하며, 넘어서서는 안 되는지 성경을 유일무이한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경계해야 마땅합니다.

■ 한 줄 기도

한줄기도 유일무이한 진리의 기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화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영한 목사(충북연회 선민교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둘째 날(2024.10.29. 화요일)

삼위일체론(신론)

-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성경: 고후 13:13
- 참조: 감리회 종교의 강령 제1조 성 삼위일체를 믿음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가 많다. 비성경적이라느니, 예수는 인간에 불과했는데 초대교회가 그를 신으로 등극시켰다는 식의 곡해를 흔히 듣는다. 너무 어렵다라는 불평도 흔하다.

먼저 성경은 비성경적이라는 논란에 대해 반박해 보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만 없지 삼위일체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 예수, 성령이 등장하고, 신약에서는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들도 있다 (마 28:19; 고후 13:13).

초대교인들은 이미 예수의 신성과 주 (主, 쿼리오스, 구약의 아도나이) 되심을 믿었지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 (요한2서 1:7)이 나타나고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아리우스의 등장을 계기로 초대교회 공의회를 통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어 나갔다. 즉 니케아 공의회 (325)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칼케돈 공의회 (451)에서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에서는 성령의 신성을 강조하여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했다.

이러한 공의회의 결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정립해가는 수순이었다. 정치적인 협잡이나 초대교회의 가공이 아니다. 이미 삼위일체를 경험했던 이들이 헬라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일체화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대어를 이해하기 어렵기에 현대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설명을 들어보면 전혀 어렵지 않다. 이들의 정리에 따르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위격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수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오해는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아닌 세 분이라는 견해)과 종속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신보다 못한 존재라는 견해)이다. 특히 자유주의신학 영향을 받으면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모범자, 예언자, 스승 정도로 격하한다.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신앙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아주 주의해야 할 사안이다.

■ 한 줄 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견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임성모 목사(웨슬리안조직신학연구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셋째 날(2024.10.30. 수요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인간론)

- 찬송: 252장(통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 성경: 롬 3:23~24, 요일 3:8
- 참조: 감리회 종교의 강령 제7조 원죄

이단경계 주간을 보내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인간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바른 말씀의 기반이 없으면 그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이단의 특성이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미혹당하여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알아 절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딤후4:1~2). 아담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죄성 속에 태어났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롬 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하였다. 다윗은 성군이였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였다. 그런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과 잉태,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고백하였다(시 51:5).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죄값은 사망이니’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다윗은 고백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1).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 무뎌지고, 더 많은 죄에 노출되었다. 짐승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잘 드러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1,23).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목적은 ‘임마누엘’하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원하시지만 죄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셨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다. 악한마귀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해서 망하게 한다(요1서 3:8).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또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고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임마누엘)하시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시기 원하신다(요14:12/행10:38). 감리회 신앙고백(1997년) 5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생애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 한 줄 기도

죄에서 저주에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공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다원주의 등 예수 이외에 구원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이름을 제외시키려는 악한 시도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소서.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봉호 목사(호남특별연회 임실반석교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넷째 날(2024.10.31. 목요일)

예수 그리스도(기독교)

-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성경: 마16:16
- 참조: 감리회 종교의 강령 제2조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심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신가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에 대해 논의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님이 선지자, 좋은 선생 또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제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요 20:28).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대속하시는 구세주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죄 값을 치르기에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요일 2:2).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그저 피조물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따르는 무한한 형벌의 대가를 치르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모든 죄의 힘을 파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 함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요1:14)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고후 5:21)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 한 줄 기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은혜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영석 목사(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 이단대책신학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다섯째 날(2024.11.1. 금요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바른 이해(구원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 찬송: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 성경: 롬 10:9-10

■ 참조: 감리회 종교의 강령 제4조 성신, 제5조 성경이 구원에 족함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틀 목사는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에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주도성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구원의 3 시제인 칭의, 성화, 영화는 각각 의롭다 인정받음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의 자리에 거하게 된다는 중요 교리를 품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핵심은 예수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행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조건에 행위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는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할 삶의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의 증표일 뿐입니다. 단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질서를 말하며 믿음과 회개, 칭의와 중생, 그리고 성화와 영화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하고, 그 믿음이 참 회개로 이어지며, 그 순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며, 또 그 찰나의 순간 **거듭남(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굳이 무엇이 먼저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바로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간 내 안에 **생명의 씨**(그리스도의 영)가 심겨지고, 이 씨가 발아하여 거룩한 삶(성화)을 이끄는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를 '**성령의 이끄심**'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행위는 구원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구원에 관해 한 가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 침투해 있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는 헬라문화권의 초대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이단 '**영지주의**'와 흡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에 혼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성경)을 대체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이념을 따라 말씀이 해석되거나 인용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을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모쪼록 혼탁하고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온전하고 건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 한 줄 기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교용 목사(중앙연회 광주만나교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다섯째 날(2024.11.2. 토요일)

교회다움을 생각하다(교회론)

-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성경: 엡 4:11-16
- 참조: 감리회 종교의 강령 제13조 교회

오늘날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세계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둘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시대에 적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초대 교회에서 정립된 교회의 네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카할 야훼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칠십인 역(헬라이어 성경)은 카할 야훼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울서신에도 '하나님 백성'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특정 민족을 지칭하기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로 설명됩니다. 신약성경 전반에서 (복음서와 바울서신)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한 몸', '자기를 비운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기 까지 희생한 사랑에 의해 형성된 사랑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셋째, 교회는 '친교적 연합'(communion) 혹은 '교제'(fellowship)라는 이미지로 설명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눔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에 친교적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는 먼저, 예배, 성찬,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나눔과 섬김 그리고 봉사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성령의 불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생겨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는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공의회를 통해 인용된 교회의 네 가지 지표를 통해 교회다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형성된 초대 교회는 세대를 거듭해 가며 그들의 신앙을 (이단들에 맞서) 바르게(orthodox) 형성하고자 공의회를 통해 믿음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대표적으로 325년 니케아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이루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는 보편성을 담보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보편성은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이단이 아닌 바른 신앙과 바른 체험과 바른 실천을 의미합니다. 셋째,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교회를 구별되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통해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자기 의 혹은 자기 애를 배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 사랑이 거룩함의 근원이자 근거입니다. 넷째,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에서 기원하는데, 그들이 세상 끝까지 전했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실천이 교회의 사도성을 보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다움에 대해 성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과 초대교회에서 강조한 네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소 간략히 설명하였지만, 교회다움에 대한 큰 지도를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 한 줄 기도

주님, 참된 교회다움을 해치는 시도들이 있을 때마다 이 지도를 펼쳐들고 바른 길을 찾아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인수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이단대책신학위원)

■ 11월 1주일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

집례자 : 교역자

[하나님께로 모임]

전 주		반주자
* 입례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4-6)

온 우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성소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경배찬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함께
* 말씀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다함께
* 삼위영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장로/권사 중에서
주님의 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다함께

[말씀과 결단]

성경봉독		권사/집사
찬양		찬양대
설교자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	
회중	: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설교		설교자
합심기도		집례자

1. 감리교회 교인이 영적으로 깨어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2. 이단에서 개종한 이들과 이단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3.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감사와 응답]

봉헌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다함께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수많은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 11월 1주일 이단경계주일 설교문 ■

말세론의 구속사적 축의(종말론)

마태복음 24장 3-16절, 요엘 2장 28-32절, 마 25:33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항목에는 구원교리에 있어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개 종말에 대한 이단들의 이해와 포교전략은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연계하여 재림의 날짜를 지정하는 것에 있다. 그 결과 특정한 시기와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특정 지은 후 종말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귀속되고 가르침을 받으므로 구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단교리에서의 종말론 반증과 성경에서의 종말론 의의, 신학에서의 종말론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단의 종말론 반증 : 말세와 재림의 복음

이단들의 종말론 도출에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연결함에 있어 성경을 자의적으로 적용, 해석함에 있어 성경을 인용한 대표적 사례 두 곳을 볼 수 있다. 구약의 경우 단7:25(한 때, 두 때, 반 때)을 재림 계산법(연일계산법)¹⁾으로 적용하여 주님의 재림 날짜를 지명하는 것이고, 신약의 경우 마 24장의 내용을 현재의 재림 징조로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것으로 주님이 이미 재림하였거나 혹은 곧 재림할 것이라 하여 이들 단체(집단)에 소속되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구원이 된다는 울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이단예방에 중요한 주제가 된다. 웨슬리는 단7:25의 ‘한 때, 두 때, 반 때’를 계시록의 1260일(계11:3;12:6)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 자세로 구약과 신약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한 서로 모순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²⁾ 단, 이것을 이단들이 말하는 민14:34(1일=1년)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해버리면 예언서(다니엘, 요한계시록)의 오역은 시작되어 버린다. 성경은 이러한 대입과 적용을 사용하므로 풀어야 하는 암호식 경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칼빈의 경우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숫자의 표기를 대입수(代入數)로 볼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보아야 하되 환란에 관하여 가중되는 것과 절반의 감소가 하나님의 진노와 공휟로서 보아야 함을 권하였다.³⁾ 마 24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어 일어날 일과 징후는 어떤 것들이 이것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나타낸 말씀이다. 일어날 일들에 있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음’에 대한 말씀은 재림에 대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실제 이 일은 AD66~70년 동안 성취된다.⁴⁾ 또한 재림의 징조에 있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나리의 소문,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있으나 이것은 말세가 아닌 재난의 시작이므로 견디어야 함을 말씀하셨다.(마24:5-13) 무엇보다 재림의 날에 관하여는 성부 하나님 외에 누구도 알지 못할뿐더러 주님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 하셨으므로(마24:36) 날짜의 확정은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다. 재림에 관하여는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것이니 깨어있어(마24:42) 늘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자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자가 복된 것이다.(계22:14) 이단의 경우 말세(末世)와 주님의 재림(再臨)을 불안감으로 만들어 재림이 마치 도피처가 되듯 곱해하지만 성경은 말세에 있어 하나님의 준비된 복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1) 연일계산법(年日計算法) : 성경의 1일을 1년으로 대입 환산하여 특정한 날짜를 확정짓는 이단 단체들의 성경해석 방식이다. 이들은 연일계산법의 근거를 민14:34(사십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처서)과 겔 4:6(하루가 일년이라)에 두며 이것을 단7:25에 대입하여 주님의 재림날짜를 확정지었다.

2) *Until a time and times*-The numbers of Daniel and John seem to agree, Daniel was certainly prophetic in these things, and his prophecy reacheth to the end of times, even of antichrifl's reign.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III」, (schmul publishers salem, ohio), 2449f.

3) 존 칼빈, 「존 칼빈 주석 13권-다니엘Ⅱ」, 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서울: 성서원, 2001), 72f.

4) 크레이그 키너, 「IVP 신약배경주석-마태복음」, 정옥배 외 역(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129.

2. 성경의 종말론 : 인간과 시대의 종말론 복음

인간의 생애에 시대의 삶에 있어 만나게 되는 종말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2.1. 말세인생의 복음 : 말세에 있어 인간의 생애를 비추어보면 생애의 마감기, 인생의 노년기에 끝을 맞이하게 된다. 모세는 인간의 생애를 70으로 보았고 강건한다 하여도 80이라 하였다.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90:10)’ 따라서 생애의 말세현상은 인생의 노년기에 찾아오게 된다. 이러한 생의 마감, 생애의 마침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오히려 인생 전체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이운 너희여 4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사46:3-4)’ 그러므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론은 인생 전반에 걸쳐 있거니와 당연히 끝자락이 여겨졌던 노년기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2. 말세시대의 복음 : 성경의 말세에 관한 가르침은 이단들이 어느 한 시대를 특정 짓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말세(末世)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시대에나 도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세(末世)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마지막 때라 여겨지는 것에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 하시므로 하나님의 구원론은 시대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일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 된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말세 시대의 신앙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한다. 말세라 여겨지는 때에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이다.(골2:28-32) ‘17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행2:17-21)

3. 구원교리에서의 종말론 :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조직신학에 있어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 종말론으로 나누어진다. 개인적 종말론의 경우 몸을 떠난 영혼이 거하게 되는 하데스(hades)로서 웨슬리는 이를 낙원(paradise, 눅23:42-43:)과 지옥(hell, 눅16:23)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마지막 심판 후에 영생으로 가게 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 때까지 임시로 있는 곳으로 지옥은 마지막 심판 후 영벌로 가게 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 때까지 임시로 있는 영역으로 보았다. 웨슬리는 이러한 hades를 낙원과 지옥으로 구성된 불가시적 세계(the invisible world)라 본다.⁵⁾ 우주적 종말론에 대하여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그의 심판대 앞에 부활한 온 인류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선 모든 영혼들(선한 영혼, 악한 영혼)은 기록된 전 생애 동안의 모든 영혼의 기질들과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이 심판주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에 의해 드러나게 됨이다.⁶⁾ 웨슬리는 이러한 종말에 관하여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을 명시한 것이다.

김현식 목사(남부연회 샘물교회, 이단대책위원)

5) 존 웨슬리,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 53편-III』“(40)대심판”, I, 1. 이선희 역 (대전: holy mountain, 2024), 406.

6) Ibid., II, 1-7. 408-415.